

2015년 10월 2일 (금)
제4회 제주학국제학술심포지엄
- 문화자원론과 지역학 -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Establishing and Sharing(Networking) 'Jeju Knowledge' as Cultural Resources

고 영 자 (高 暎 子, KO Young-ja)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학계는 기존 지식에 대한 지식, 나아가 지식 기반 체계 자체를 문제제하는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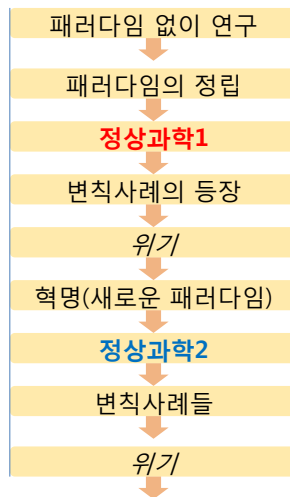
동서양 역사에 대한 접근이나 세계사를 새롭게 보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바로 그 기폭제이자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무수한 사상들,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 일국(一國) 또는 공동체 지(知)의 성립 관점에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와

그로부터 16년 후 나온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사상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토마스 쿤 (1922 ~ 1996, Thomas Samuel Kuhn) 에 따른 학문 발전 구조
 <<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 >> (1962년)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는 서로 다른 방식과 목적을 가진

다양한 활동 주체들에게 노출되며 기록되었고,

이 기록물들은 제주 외부로 적잖게 유포되어

제주도 이미지 메이킹에 기여해 왔다.

이 단계에서 **제주**는 **유배지, 난파지, 기항지, 반란지, 정복지** 등으로 묘사되

어 문화적 요소와는 거리가 먼 이국적 섬에 불과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78)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

'서구에 의해서 구성된 비이성적이고 열등한 동양',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이자 지배방식'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제주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확립되기까지 '제주'가 처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시선과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면...

시기별 외부인들이 남긴 제주기록

- Ⓐ 삼국시대~조선시대(1) : 중국인, 조선조정에서 파견된 행정관료, 탐방객, 유배인
- Ⓑ 1653년 하멜 표류 이래(2) : 유럽인 표류인, 항해가, 탐방객, 선교사, 연구자
- Ⓒ 개항 전후(3) : 일본인 행정관료, 탐방객, 연구자 (유럽인+조선인 포함)
- Ⓓ 일제강점기(4) : 일본인 조사원, 탐방객, 학자 (유럽인+조선인 포함)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이들 시기별 외부인들이 남긴 제주기록 중 ㉠개항 전후와 ㉡일제강점기에 쓰인 기록물들은 근대=제국주의 팽창기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다.

19세기 중반부터 학문에 대한 종교적인 통제가 약화됨과 동시에 민족·역사의식이 싹트면서 역사학을 비롯한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언어학 등등의 근대 개별학문이 정착.

동시기 제국주의 국가들은 타국을 점령·지배하면서 다양한 토착문화와 폭넓게 접촉하게 되고, 착취와 지배의 수단으로서 해당 지역 '지(知)'의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시기별 외부인들이 남긴 제주기록' 중 특히

㉠ 삼국시대~조선시대 + ㉡ 1653년 하멜 표류 이래

㉠ 와 ㉡ 경우는 토마스 쿤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제주지'에 대한 '패러다임 없이' 기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예로 ① 제주도의 험한 자연지형과 이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을 알리는 기록들, ② 음사(淫祀)만 숭상한다는 기록들, ③ 제주도 여자들에 관한 기록들을 들 수 있다.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한편, ⑩ 일제강점기 전후 제주도를 방문하여 이를 조사·기록한 자료들은 '근대' 패러다임에 입각한 개별학문 별로 제주도 조사·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졌다.

한라산 관련 전문 기행문에서부터, 제주도 총서,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건축학, 지리학, 농업환경 분야까지 다양한 개별학문들이 제주에 유입된다.

이들 문헌 및 자료들은 분명 '오리엔탈리즘'과 '근대(학문)'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생산된 것들이기도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해방 후 자국인(한국인·제주인) 연구자들에게 근대 제주를 연구하는 원천자료로 수용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1931년 무라야마 지준 조사단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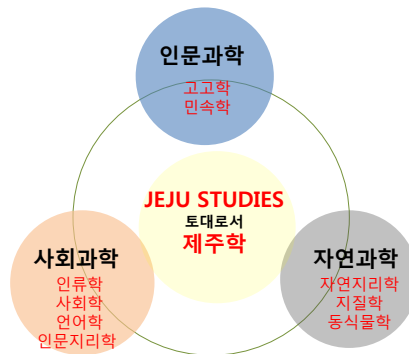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제주지역에 관해 비교적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로 보고 있다.

제주학 연구범위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까지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2010년 '제주학 연구자 모임'이 제주학의 범위와 지향점을 표방하는 글을 인용해 보자.

“제주학은 종합학문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제주학 연구자들은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인문지리학 등과 같은 인문·사회과학과 아울러, 자연지리학, 지질학, 동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새로운 연구성과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본인이 행하는 연구주제와의 합일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행해야 한다.”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1. '지(知)'의 성립: '제주학' 패러다임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주학은 문화·예술, 제일제주인, 평화, 인권, 동아시아 해양 문화에 이르기 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화 시대 제주의 특수성을 보편적 차원으로 끌어내는 학제간의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2000년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문화자원학연구 전공'을 개설하며, 문화자원학의 구상

문화자원학의 구상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문학이 텍스트 연구 중심에 있었음을 재고하여, **인간의 문화를 '언어·형태·소리(ことば・かたち・おと)'라는 근원적 차원에서** 다시 파악하고, 그 연구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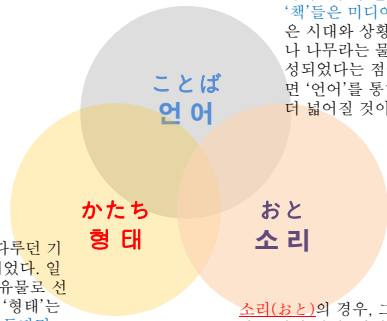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2000년, 동경대학 대학원에 '문화자원학연구실' 개설하며 '문화자원학' 구상

文化経営学コース
形態資料学コース
文字資料学コース
 (文書学専門分野、文献学専門分野)

文化資源学研究専攻
 (2015年4月より改組)
文化経営学コース
文化資源学コース
 (形態資料学+文字資料学)

언어(ことば)는 문서 및 문헌 연구와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언어'를 상대하면서, 독해훈련을 왕성하게 요구해왔다. **사실 먼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문자', '문서', '책'들은 미디어였다는 점.** 이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종이나 돌이나 나무라는 물질, 붓과 펜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 다시금 눈을 돌리면 '언어'를 통한 연구의 길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형태(かたち)의 경우, 이것을 주로 다루던 기존 학문분야는 미술사학과 고고학이었다. 일단 이 영역에서 미술작품 또는 고고유물로 선정되면, 그 이외의 수많은 부수적인 '형태'는 시야 밖으로 벗어난다. 그림을 예로 든다면, 그림은 본체에서 떨어져 관화나 사진, 인쇄물,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한 중심 이미지만을 논했던 것이 기존의 관심이라면, 여기서는 원래 회화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로서 그림의 형태나 물질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형태'는 그것이 각각의 시대에 각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소리(おと)의 경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형태'(신체, 악기, 음표, 악보, 음악학교, 콘서트 홀, 레코드, 테이프 레코더, CD, 음악 전달 사이트 등)와 함께 태어나 전송되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

Cultural Resources Studies

가나자와대학
문화자원매니저
양성프로그램



金沢大学 文化資源マネージャー養成プログラム

문화자원 개념을 중심으로

- ① 형태문화자원 : 미술사, 공예사, 고고학, 건축사, 경관사, 문화재학, 박물관학 등.
- ② 전승문화자원 : 언어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지리학, 종교학, 예술학 등.
- ③ 보호·계승·활용 : 논리·윤리학적 기반, 정보, 지적재산법, 세계경영론 등이 있다.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인용) “문화자원학은 말하자면 기존의 학문 체계를 벗어나서, 체계화의 토대가 되는 자료군(資料群) 속으로 파고들면서 시작된다. 문화를 근원으로 되돌아가서 재고하고, 자료군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으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기존 인문·사회과학 세부 전공들이 ‘문화자원’이란 사유를 중심으로 횡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발표자의 경우는

[제주도 전승의 ‘형태’자료\(시각자료\)에 관심을 두면서, 제주도 장소·이미지 변천사, 제주도 문화재와 축제, 신앙에서 문화로 재편되는 제주곳, 그리고 장소의 기억](#) 등의 연구주제로 하면서, 그 성과물을 다시 어떤 매체와 연계하여 활용화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마을자원 vs. 문화자원

한편, 제주도와 직접 관련해서,

마을자원을 ‘문화자원’의 원천(sources)으로 보고, 그것들의 문화자원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사실, 이 구상은 마을자원의 개념과 범위를 중심으로 제주도 마을자원의 구성조직과 가치를 분석한 정광중 교수의 논문(2010)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자원의 구성조직과 가치화 분석 방향>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마을자원 vs. 문화자원

“마을자원이란 일정한 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거나 전승돼 온 유무형의 자원으로서, 해당마을을 널리 알리고 마을주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요소”

(정광중, 2010: 143).

마을자원의 1차적인 구성 조직의 방향은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경제의 활성화 또는 마을 내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아래의 4가지 부분을 반영을 하여 접근하고 있다.

- A. 생산기반시설과 생산물(해당마을)
- B. 자연자원(지형적, 지질적, 식생적 특성과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구성요소)
- C. 인문자원(인문환경 구성요소)
 - 유무형의 역사적·문화적·민속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
 - 경관적·건축적 특성, 미적 가치를 지닌 자원적 요소.
- D. 인적자원(마을구성원 및 주요조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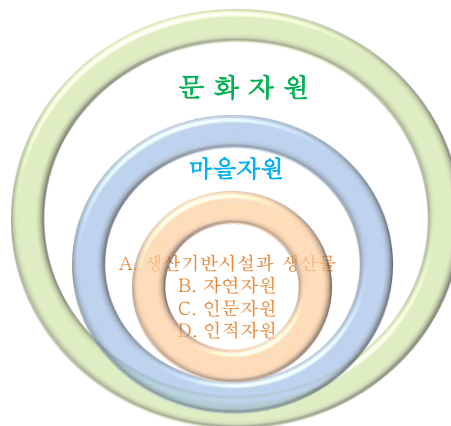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마을자원 vs. 문화자원

위의 마을자원을 이루는 4분야에는 ‘문화자원’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보통 ‘자연자원’의 반대 개념으로 ‘문화자원’이란 개념을 떠올릴 수 있지만, 위 분류에는 ‘문화자원’라는 용어가 아닌 ‘인문자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는 분명 지리학계에서 통용하는 용어라 추정되지만, 저자가 이를 ‘문화자원’이라는 용어와는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차별화했을 것이란 추측을 감히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광중 교수의 논문은 제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문화자원론 사유에 더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즉, 마을자원을 축으로 심층적으로는 개별연구영역의 심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그것들의 가치화·활성화의 길을 동시에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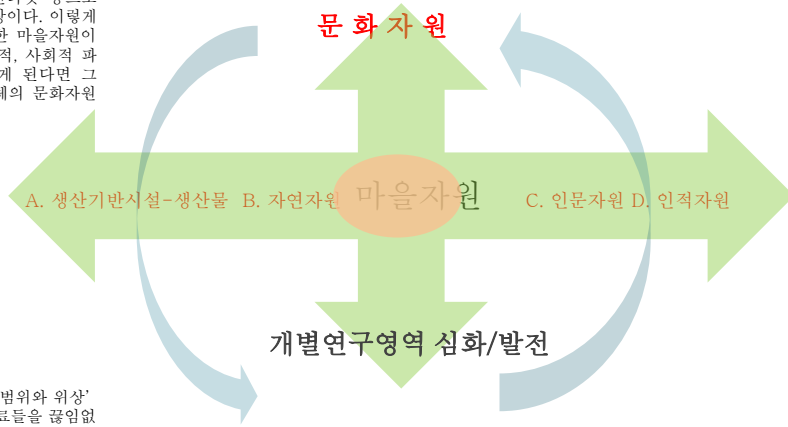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마을자원에서 문화자원으로 © 필자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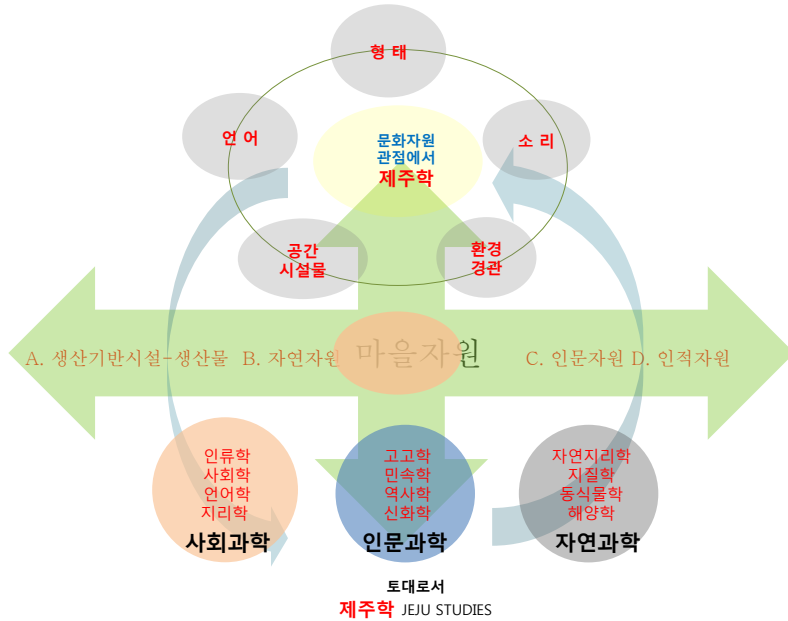
‘문화자원’ 영역은 하단의 개별연구의 성과물들이다. 양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방송, 영화, 인터넷’ 등으로 재탄생하는 장이다. 이렇게 해서 재탄생한 마을자원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과급력을 지니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공동체의 문화자원이 된다.



‘기존 제주학 범위와 위상’을 넓히며 자료들을 끊임없이 발굴, 수집, 분석, 기록, 분류하는 작업.

문화자원화 관점에서 제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필자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문화자원화 관점에서 제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 필자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캐나다 출신의 범국가적 공동체 문화발전 및 문화정책 연구자
그레그 백커(Greg Bae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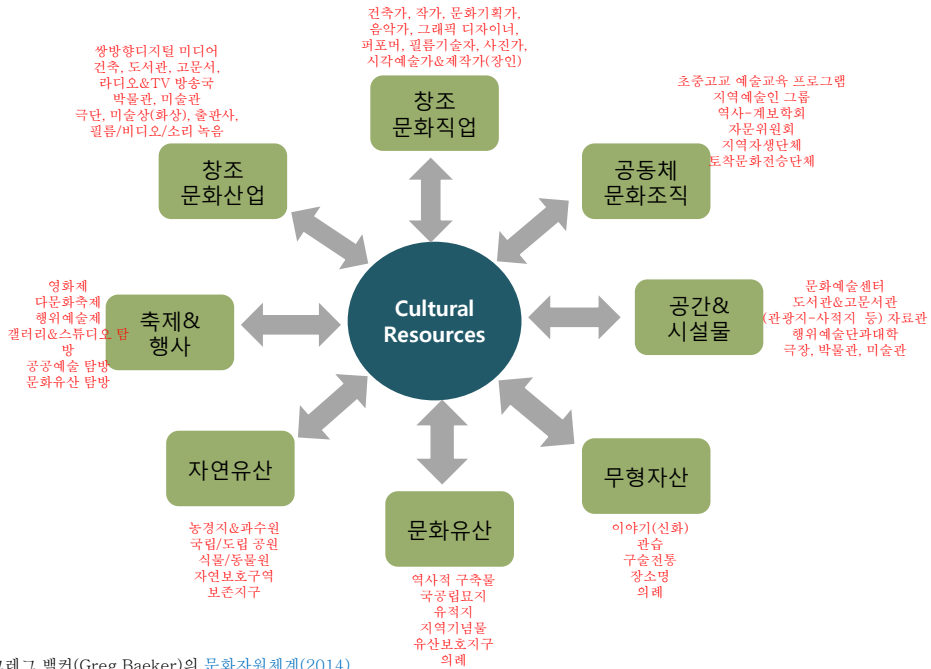
“공동체들의 문제는 문화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상이한 활동 주체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과 목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작업의 첫 단계는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기존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것을 문화자원체계(Cultural Resource Framework),

즉 문화자원의 범주들을 제어하는 일관된 시스템에서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reg Baeker
cultural mapping(2014)



그레그 백커(Greg Baeker)의 문화자원체계(2014)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그러나

공동체문화의 '문화자원화'가 궁극적으로는 상업화, 대중화, 관광산업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영국의 "문화유산산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

아이반 개스켈(Ivan Gaskell)은 1991년 논문 '이미지의 역사'

로버트 휴이슨(Robert Hewison)의 저서 《문화유산산업: 쇠잔하는 기후 속의 영국》(1987)

개스켈에 따르면 문화유산산업은 시각적 미디어를 통해 '즉석에서의 반응'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거는 간단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수용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비분석적이며, 이 경우 변화의 프로세스로서의 역가는 끝이거나 끝을 내야함을 암암리에 의미한다.

로버트 휴이슨의 맥락에서,

(1980년대) 문화유산산업은 역사적 근거 또는 정확성, 논쟁, 시대구분의 엄밀성보다는 과거를 말끔히 포장하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역사의 상업적 묘사에만 집중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역사는 학문적(정확성과 논쟁을 근거) 이라기보다는 대중 편향적(흥미 분위기)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

사실, 관광산업을 위시로 일부 마을자원을 역사와 단절시키고 관광상품으로 포장해온 온 작금의 제주도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는 마을자원을 축으로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 생산·축적된 자료군(資料群)으로부터 문화자원범주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생활 세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신할 줄 아는 집단적 지식(know-how)이라 정의해 본다. 이 과정에는 기존 자료군을 체계적으로 식별, 기록, 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발신 목적에 따라 매체 선정이 달라진다.

Ex.

금석문, 회화, 기록사진, 마을지도, 학술지, 사진, 지지(地誌),
마을자원 및 서지 데이터베이스, 영화, 박물관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디지털 문화사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인포그래픽스(information graphics)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영역까지 포함.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지금까지 제주를 알리는 다양한 매체와 시도들.

그것들 중 최근 제주해녀박물관에서 발표한

제주해녀 '인포그래픽'

(박물관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에 소개)

Pdf 같이 봄.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관련해서,

2014년 일본 리즈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Art Research Center가
공개한 곤도 유타카(近藤豊)의 6만장 사진자료(1930년대~1970년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옛 사진으로부터 장소의 정보를 시각적·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GIS 및 웹 맵을 이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다.

이와 같은 문화자원 구축 프로젝트는 사실 제주도 장소의 변천과 장소의 기억에 관심을 갖고 '형태'자료를 수집·분석해 오고 있는 발표자에게는 커다란 자극제이기도 하다.

3.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은

지역문화 연구 및 교육자, 학회, 문화행정·정책가, 지역문화예술인, 큐레이터, 토착문화전승단체, 출판인, 엔지니어 등등 공동체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시 방문객을 위한 단순한 제주홍보가 아니라,

- ① 제주를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위하여
- ② 제주 중심적 접근(Jeju-centered approach)으로 제주의 근원에 파고들며,
이를 통해
- ③ 제주의 과거-현재-미래를 횡단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문화자원을 함께 만들어야.

물론 이 과정에서 지(知)의 생산자와 공유자들은 편협한 지역주의이니 배타적 향토주의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결 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지, 이주지, 국제행사장, 평화의 섬, 전통문화의 섬 나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등으로 급부상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본 발표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의 확립과 공유(네트워킹)>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하 본 발표에서 다룬 핵심논점을 다음과 같다.

결 론

① (제주학 관련)

기존 제주학 연구의 성과물들이

공동체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과급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학제적 연구 주제를 도입할 필요.

예를 들어 '형태, 소리, 언어, 경관, 생태' 등등의 주제로 재편하여 개별학문들 간 횡단하고, 교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결 론

② 문화의 생성·변화·쇠퇴 그리고 그 가치의 (재)발견은 테크놀로지(도구, 기술, 사용법)의 매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동체 삶의 기록, 보존, 분석, 발신, 공유의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가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이다. 그것들은 도서관, 고문서관, 박물관, 미술관, 방송,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회에 끊임없이 재탄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의 기록, 보존, 분석, 발신, 공유의 테크놀로지는 문화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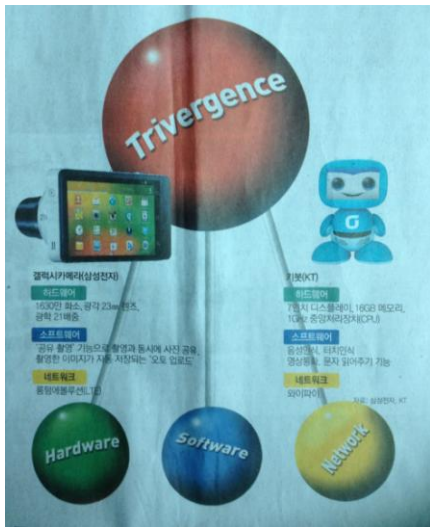
결 론

③ (공동체 조직/인적자원의 유기적인 협력)

<문화자원으로서 ‘제주知’>는 기존의 학문 체계에서 생산·축적된 자료군(資料群)으로부터 문화자원범주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생활세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신할 줄 아는 집단적 지식(know-how)이다.

우리가 공유(네트워킹)할 것은 바로 이러한 지(知)이고 그 자체가 문화자원이다.

2012년 LTE 기능 담은 갤럭시 카메라 홍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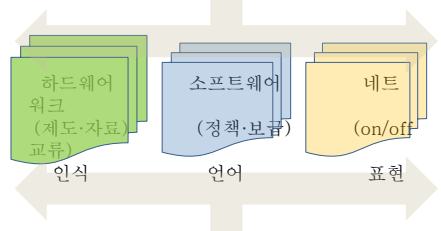


(동아일보, Business Thursday, 2012.12.13.)

21세기 ‘제주知’
=
트라이 버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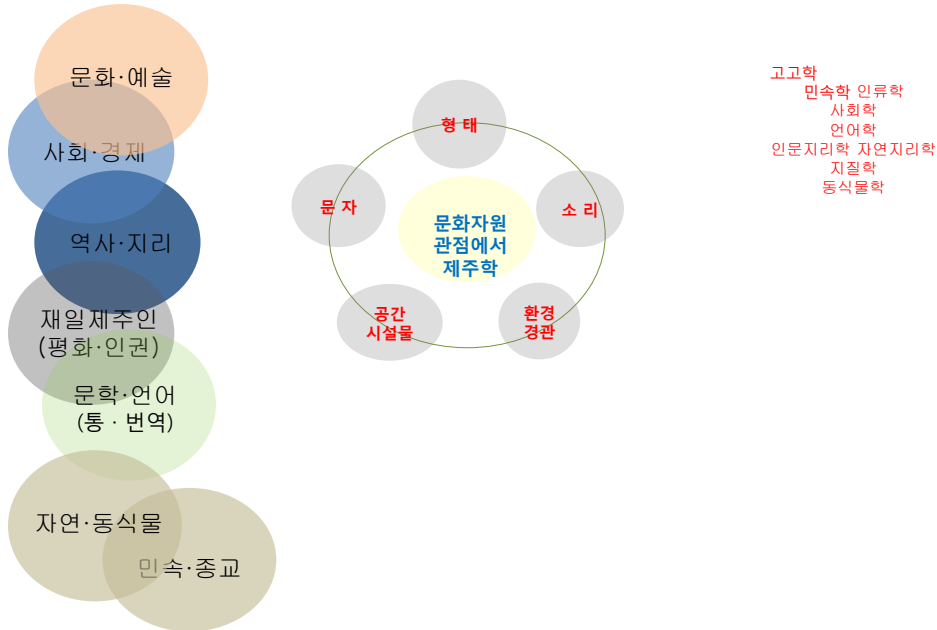
트리플(triple)+컨버전스
(convergence)

3가지 융합



멀티 컨버전스

문화자원학 관점에서 제주연구 JEJU STUDIES



2. 새로운 패러다임 : 문화자원학(론) 관점에서 제주학

언어(ことば)는 문서 및 문헌 연구와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언어’를 상대하면서, 독해훈련을 왕성하게 요구해왔다. **사실 먼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문자’, ‘문서’, ‘책’들은 미디어였다는 점.** 이것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종이나 돌이나 나무라는 물질, 붓과 펜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 다시금 눈을 돌리면 ‘언어’를 통한 연구의 길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형태(かたち)의 경우, 이것을 주로 다루던 기존 학문분야는 미술사학과 고고학이었다. 일단 이 영역에서 미술작품 또는 고고유물로 선정되면, 그 이외의 수많은 부수적인 ‘형태’는 시야 밖으로 벗어난다. 그림을 예로 든다면, 그림은 본체에서 떨어져 판화나 사진, 인쇄물,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한 중심 이미지만을 논했던 것이 기존의 관심이라면, 여기서는 원래 회화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로서 그림의 형태(벽화, 벽장문 그림, 천정화, 족자, 두루마리, 소원풀이 액자, 액자화 등)나 물질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형태’는 그것이 각각의 시대에 각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해주는 때문이다.

소리(おと)의 경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형태’(신체, 악기, 음표, 악보, 음악학교, 콘서트 홀, 레코드, 테이프 레코더, CD, 음악 전달 사이트 등)와 함께 태어나 전승되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